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전도서 12장 13~14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빌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이고 둘째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없이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한 후에 후회를 한다면 아예 하지 않은 것만 도 못할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후회가 된다면 만나지 않은 것 보다 못할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잘되고 돈도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안 하느니 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면 시작을 차라리 하지 말았어 야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희망차게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길을 다 간 후에 나는 정말 이 길을 걸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대체로 크게 두가지를 좇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당신은 돈과 욕망을 좇아가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사람들은 돈을 좇아가고 욕망을 좇아갑니다. 왜냐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욕망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인간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인간 이상의 지혜와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1. 가치관을 바꾸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원어 뜻은 ‘실속 없다’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이 감정적으로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찾아서 끼워 넣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알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나름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즉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문만 잔뜩 있고 답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지 자신의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핵심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나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잘 될 때 인생의 풍년을 탕진하지 마십시오. 항상 풍년이 아닙니다. 인생도 젊음도 신속히 가고 건강도 신속히 갑니다. 물론 물질도 신속히 날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좋은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풍년일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훈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입니다.

그토록 보잘것없고 패역한 자들도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는 전부 잊은 채 더 잘살기 위해 자기 욕심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을 부인한 죄 즉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 목적상실죄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3,4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왜 자격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야 출세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짓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사진을 찾아 한 번 보십시오. 눈빛이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 받아 지금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라.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여러 시간 중에 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크로노스, 즉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순간순간을 카이로스로 기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 하루도 영광스럽지 않게 사는 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번의 예배도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헛되이 드러지는 예배가 없게 하옵소서. 매일 매일의 삶이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다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성령의 기쁨을 붓는 삶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시간 개념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두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보니 시간이 삼분되었다고 합니다. 산업시대가 열리면서 24 시간을 기본으로 한 시간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시대가 되니까 한 시간이 아니라 초 단위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몇 초 빨리 정보를 공유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코리안 타임이란 잘못된 습성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또 제때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최악입니다. 전도서 10 장 1 절에 우매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일에 소홀히 한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 받는 사람과 버림 받는 사람의 차이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나타납니다.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우습게 여기기 마십시오. 예배 한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예복 입지 않은 자와 다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5 분, 10 분 차이가 축복과 저주의 길을 좌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간 즉 크로노스를 의미 있는 카이로스라 만들라는 권면입니다. **(딤후 4: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만드는 길은 믿음에서 물러가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축된 인생을 살지 않고 모험적인 인생 약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0: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다는 것은 모험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려면 도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엇인가 해보다가 실패한 사람이 더 유용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조건 모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험에도 원칙과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두번째는 모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험하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접목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사용합니다. 용의주도에게 준비하고 그 준비된 내용을 두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사를 성취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눔의 시간

1. 당신은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지금의 신앙상태는 어떻습니까?
3. 예수 믿은 뒤 믿음으로 도전하였었던 것을 나누기 바랍니다.